



Slow Food
2025. 04

종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모두에게

slow food

LETTER | COLUMN | REPORT | ARK OF TASTE | PEOPLE | CONVIVIVUM



나무에 얹은 여러 사람의 손, 자연을 생각하는 한마음으로 모여 있다.

© Shane Rounce on Uusplash



슬로푸드 소식을 모아 전하는 '슬로푸드' 섹션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와 「슬로매거진달팽이」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슬로푸드 운동의 현장은 물론 국제슬로푸드 협회의 여러 가지 소식과 슬로푸드를 실천하는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아우르며, 매달 다양한 슬로푸드 뉴스, 인물 인터뷰, 활동 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www.slowfood.or.kr 문의 02-737-1665

 **Slow Food®**

다양성 상실의 시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사무실이 있는 안국동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의 축소판입니다. 매일 양극단 진영의 대형 스피커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공격적인 발언들로 서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내 한복판이 아니라 휴전선 어디쯤 와있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모로 바쁜데 이런 사회, 정치적 불안까지 더해져 몸도 마음도 지치는 듯해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할까 싶어 유튜브에서 '홈트'를 검색했습니다. 이후 이른바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제 유튜브 계정은 관련 영상이 계속 생성되면서 거의 홈트 영상으로 가득 차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예전의 내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홈트'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처럼, 관련 정보만 넘쳐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극단으로 갈라진 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차 없이 사회적·심리적 테러를 벌이고, 심하게는 물리적 폭력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어쩌면 내 유튜브가 홈트 관련 정보만으로 뒤덮이듯, 지금 사회는 모든 정보를 SNS에서 소비하는 우리의 미디어 환경에서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보 제공의 영향이 미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성 상실은 통합을 해치고 분열된 사회의 모습을 초래하여 이미 우리 사회 구석구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슬로푸드 운동에서는 음식을 단순한 먹을거리로 보지 않고 다양성의 매개체로 봅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현재 7000여 개의 언어 중 절반 이상이 21세기 안에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세계화와 도시화,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각 나라 또는 지역 고유의 언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슬로푸드 협회는 남양주 슬로푸드 축제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할머니의 음식과 지역 사투리를 살린 요리 영상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이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전국 각지의 음식과 그 지역의 언어가 얼마나 정겹고 따뜻하고 유쾌한지를 경험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최근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주 방언을 제목으로 한 드라마가 대중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접한 사람 중 그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은 드물었을 것입니다. 다양성이 사라진다면 언어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획일화되며, 경제적 논리와 효율이 우선시되면서 문화, 사상, 생태계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

습니다. 다양성의 감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입니다. 다양성을 상실한 사회에서는 획일화된 사고방식으로 창의성을 잃고, 더 이상 협력하지 않으며, 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획일적 가치관은 필연적으로 소수자와 약자를 배제하고, 이들은 주류 사회에서 소외되어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다양성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도 생물다양성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대규모 단일 품종의 농업은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취약해 식량 위기를 초래하며, 인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슬로푸드에서는 식량권은 단순히 농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함께 살리고 존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슬로푸드 안내문에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물리적·정신적 복지를 창조하고 자신들이 속한 지역을 보살피고 경제활동과 인간의 성장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규모 지역 경제를 만들어내어 보편적이고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다양성과 생물다양성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음식은 자연에서 오며 문화를 만들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건강한 음식은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문화 다양성과 생물다양성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한쪽의 다양성이 소멸하면 사회는 병들고 생태계는 죽어가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슬로푸드 운동이 추구하는 생물다양성 회복 운동은 단순히 생태계를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지구와 지역 공동체와 우리의 전통문화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생물다양성 회복만이 문화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시작은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슬로푸드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는 음식이라는 단순한 목표가 아닌 다양성 회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철학입니다. ●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장항연** 이사

조리가 필요한 이유

글 김종덕(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회장) 사진 Unsplash

해외의 광활한 밭, 규모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밭과 비교된다.

현재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수입한 글로벌 푸드, 그리고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된 식재료나 사료로 만들어진 가공식품, 1000가지 넘는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는 식품 등입니다. 집에서 조리하지 않으면 이러한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음식을 일상적으로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우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식재료에 들어있는 잔류농약과 농약 성분, 방부제 성분, GMO 재료 때문입니다. 또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각종 첨가물 때문입니다. 이들 음식으로 인해 만병의 근원인 비만이 늘어나고, 자폐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가진 아동이 늘고 있습니다. 책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34개 질병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GMO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성인은 늘어난 성인병과 각종 질환으로 고생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17.5년으로 노년일수록 병원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 또한 먹는 음식과 관련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낮아 수입 식품인 글로벌 푸드에 많이 의존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농업을 위축시키고, 지구온난화, 전쟁 등으로 식량 수급이 불안해지고, 이는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에그플레이션(eggflation) 상황을 초래하여 식량 수입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결국 식량 수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태 및 환경파괴, 지구온난화 심화 등에 일조합니다. 값싼 식재료를 대량 생산해 공급하는 글로벌 푸드는 대규모 농장에서 단일작물을 재배하고, 곡물 작물 생산과정에서는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대거 투여해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호에 역행하고, 땅의 산성화와 사막화, 땅 및 물 오염을 초래합니다. 대량생산과 장거리 수송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는 지구온난화를 심화키는 탄소 배출의 주범입니다.

위의 몇 가지 사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조리하지 않는다면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가졌던 유대감을 상실하고, 가족 간의 소통 기회가 줄어듭니다. 조리를 안 하면 배달 음식이나 즉석 가공식품의 소비가 늘어나 가정 경제에도 부담이 됩니다. 무엇보다 전통 조리 기술이 사라져 우리의 전통문화를 잃고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조리는 우리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고, 가정 공동체를 지키고, 전통문화를 지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



생산자들의 GMO(유전자조작 작물) 비재배 선언

‘제19회 GMO 프리존 대회 in 에히메’ 참가기 내가 살아가는 ‘로컬’을 지킨다는 것

글·사진 권용(GMO 반대전국행동 국제연대위원장)



<GMO 프리존 대회>는 생산자가 자기 농지에서 유전자조작 작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GMO 프리존 운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일본의 제도에서는 GMO의 ‘사용’에 대해서 승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용에는 수입과 유통은 물론 재배도 포함된다. 따라서 사용이 승인된 유전자조작 작물 9종 336품종 (2025년 3월 현재)은 언제든지 재배하고 유통할 수 있는 것이다. ”

올해 3월 1일,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서 ‘제19회 GMO 프리존 운동 전국교류집회 in 에히메’(이하 GMO 프리존 대회)가 열렸다. 매년 지역을 번갈아 가며 열리는 GMO 프리존 대회지만 올해 이마바리시에서 대회가 열린 데에는 까닭이 있다. 에히메현에서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감귤류 육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도발 빠르게 새로운 생명공학작물 기술은 기존의 유전자조작(GM) 기술로 보지 않는



GMO 프리존대회 행사 모습

다는 행정 절차를 처리했다. 그 결과 유전자 가위 토마토와 광어, 참돔 등이 개발되었으며 시중에도 유통되고 있다. 작년 18회 대회가 구마모토에서 열린 것도 일본의 사나텍시드사가 유전자 가위 토마토를 개발하고 재배하는 지역이 구마모토이기 때문이었다.

GMO 프리존 대회는 생산자가 자기 농지에서 유전자조작 작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GMO 프리존 운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일본 제도에서는 GMO의 '사용'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입과 유통은 물론 재배도 포함된다. 따라서 사용이 승인된 유전자조작 작물 9종 336품종(2025년 3월 현재)은 언제든 재배하고 유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시민들은 GMO 재배 여부를 지켜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때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 시작된 GMO 프리존 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일본에서도 진행하기로 한 것이 오늘까

지 이어진 것이다. GMO 프리존 대회에서는 회원 단체가 1년간 활동한 성과를 집계하는데, 농지, 삼림, 목장, 바다에서 GMO 생산을 거부한다고 선언한 GMO 프리존을 면적으로 측정하고 GMO 구매 거부를 선언한 시민인 'GMO 서포터즈'도 함께 집계한다. 꾸준히 프리존 면적과 서포터즈를 늘려온 결과 올해는 농지 면적이 10만7744헥타르, 서포터즈는 2만9373명이 되었다.

한국은 이 대회에 12회부터 참여하여 유전자조작을 둘러싼 한국의 상황을 공유했다. 같은 시기에 대만도 참여하여 3개국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연락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마바리 생산지 모습



올해는 필자가 GMO 반대전국행동을 대표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유전자 가위 관련 법안과 22대 국회에 새로 상정된 유전자 가위 관련 법안 등 한국의 1년 상황을 발표했다.

올해 프리존 대회의 주제는 먹을거리와 관련한 이마바리시의 실천이었다. 이마바리시는 GMO 재배 제한을 골자로 하는 ‘먹을거리와 농업의 마을 만들기’ 조례를 2006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곳이다. 이 조례에는 유기농 로컬 급식을 추진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대회는 프리존 운동의 확산을 확인하는 본행사 외에도 영화 상영, 패널 토론, 강연, 지역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활동 속에서 로컬, 유기농, 친환경 등이 하나의 스펙이 아니라 그것들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느꼈다.

생명의 목적은 자기 보존인데 오늘날 우리가 지속가능성이라고 부르는 말도 근본적으로는 이를 가리킨다. 생명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 하나의 전략이 바로 다양성이다. 끊임없이 다양해지고 그 다양성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생명이 이어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심화하는 힘만큼의 탈중심화하는 힘이 작용하여 원을 이루는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운동은 멈추고 추락한다.

한편, 인간의 행보는 대체로 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바탕이 되는 지역이 살아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지역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를 나누는 기쁨을 느끼는 것. 중심화하는 가치 체계에 대항하는 공동체적 가치 체계의 터전을 꾸리는 것. GMO 프리존 대회는 단순히 거대한 농업 자본의 힘을 거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에서 생명을 가꾸고 키워나가는 가치가 우리 힘의 바탕이라는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었다.

GMO 재배가 아직 허가된 적 없는 한국에는 GMO 프리존 대회가 필요 없다. 선배 농민들은 한국에서 GMO가 재배되는 것만큼은 막아냈고 덕분에 시민들은 한국에서 GMO가 재배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종종 발생해온 유출 사태에도 정부가 앞장서 책임지고 GMO 제거와 확산 방지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지금 세계의 쟁점은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에 맞춰져 있다. 현재 한국 기준에서는 이러한 기술 모두가 유전자조작으로 분류되어 심사 절차와 표시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이를 유전자조작으로 보지 않고 심사도 면제하는 법안이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도 발의되었다. 일본의 동료 시민들은 이를 막지 못했으며, 언제 유전자조작 식품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알려달라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었다.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미래에 살고 싶지 않고, 그런 미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관심을 두고 행동해야 한다. ●

● 권웅 GMO반대전국행동 국제연대위원장은...

통·번역가로 국내외 생협 및 농식품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달콤한 바나나의 씹쓸한 현실』 등을 번역했다. 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계속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에서는 국제연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smoky.kwon@gmail.com



산파래를 채집하는 폴섬 해안가

초도 이장 김진수의 섬살이 이야기 영등할매 오신 날

글·사진 김진수(시인,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섬사람들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무서운 바다를 터전 삼은 것을 숙명으로 여긴다. 섬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돌풍과 파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으니, 비바람을 다스리는 영등할매께서 노여움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잘 모셔야 했다.

바람이 분다. 영등바람이 분다.

금잔옥대 수선화 매화꽃의 향기가 영등할매 명주 치마폭에서 이는 봄바람에 실려 얼어붙은 세상 움츠린 어깨를 툭툭 치며 사방팔방의 겨울 빗장을 풀어내고 있다.

영등할매의 전설은 방방곡곡에 남아있는데, 특히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7월 백중사리와 더불어 2월 영등사리에는 겨우내 품어 키운 갯것들을 내주는 영등할매께 감사하며 정성껏 제를 올리고 영을 터서 다 함께 조개를 캐고 해초를 뜯는다.

망망대해 옹기종기 떠 있는 폴섬에서도 해마다 영등할매 맞이를 한다.

이곳 사람들은 음력으로 2월 초하룻날이면 어김없이 영등할매가 내려오신다고 믿는다.



채집 전의 산파래 모습

하늘에서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딸과 며느리를 거느리고 내려와서 한 해의 길흉을 점지하고 땅과 바다를 열어 농사와 고기잡이를 시작하게 해주신다고 굳게 믿어왔다. 섬사람들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무서운 바다를 터전 삼은 것을 숙명으로 여긴다. 섬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돌풍과 파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으니, 비바람을 다스리는 영등할매께서 노여움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잘 모셔야 했다.

정월 그믐날 해가 수평선 속으로 사라지면 어른들은 집의 모든 문과 옷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등할매를 맞이한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늦겨울 밤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웅크려 잤던 기억이 생생하다. 어른들은 영등할매가 오신 2월 초에 비가 오면 며느리를, 바람이 불면 딸을 데리고 왔다고 여기며 며느리를 데려오면 그해 농사가 풍년이고 딸을 데려오면 바다가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특히 영등할매가 왔다 가기 전에 땅을 파면 그 집안에 흉사가 생긴다고 여겼기에 영등달에는 함부로 땅을 파는 일을 금기시켰으므로, 사람이 죽어도 땅에 묻지 못하고 초분을 썼다. 농사일이 아무리 급해도 2월 10일을 넘기고 땅을 파야 황액의 창궐을 막을 수 있었으며 보리 밭에는 오색천으로 만든 영등 깃발을 꽂아놓고 풍년을 기원했다.

영등사리가 지나고 2월 스무날이 넘으면 영등할매가 다시 승천한다.

이날은 특히 썩, 씹, 다래끼 같은 눈병이 나지 않도록 깨끗한 물에 깨나 녹두, 콩, 팥 등을 띄워 눈을 씻어 내리고 마당에 뿌려주었다.

이때쯤 바다에서는 영등치라고도 하는 바람이 부는데 육지 쪽에서는 꽃샘바람이라고 한다. 영등할매가 승천하면서 입고 오신 명주 치마로 바람을 일으켜 지상의 모든 액운을 빗자루질 해 줘야 본격적으로 농사일도 시작하고 고기잡이도 나갔다.

이렇게 정성껏 맞이하던 영등할매도 요즈음에는 미신으로 터부시되고, 오는지 가는지 관심 밖으로 밀려난 고리타분한 옛 풍습이 되어버렸다. 첨단과학의 시대에도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고 자연은 순환하는데 그 오랜 풍습과 전통문화 속에서 찾아내고 보전해야 할 가치와 유산은 무엇인지 깊은 생각에 빠져든다.

세계는 지금 죽기 살기로 전쟁통에 시끄럽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인파가 갈라져서 우리 영등할매 심기를 건드렸으니 어찌 혼자 올 수 있었겠는가?

올해에는 딸과 며느리를 다 데리고 왔는지 하필이면 영등 대사리 물때에 매서운 눈보라에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래도 이곳 머나먼 남쪽 나라 평화로운 풀섬에는 벌써 동백꽃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산과 들에 파릇파릇한 봄나물이 보기 좋다. 게다가 영등사리 갯바탕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파래며 미역이며 톳이며 김이며 가사리와 물갯... 전복이며 해삼이며 꾸족이며 고동, 배말, 보찰 등이 입맛을 돋운다.

미끄러운 갯바탕을 조심조심 더듬어서 이것저것 한 움큼씩 뜯고 캐다가 할머니, 어머니가 물려주시고 아내가 딸, 며느리, 손녀들에게 다시 전해줄 영등사리 풀섬의 옛 밥상을 차린다.

그중에서 오늘 소개할 요리는 '산파래김치'다.

산파래는 학명으로 갈조류 속 '고리매'이며 비만 등 대사성 질환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강원도 등지에서는 김이나 감태처럼 떠서 말린 특산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곳 초도는 바다향 가득한 산파래김치로만 즐겨 먹는다.

고리매는 저수온기에 성장하며, 영등철이 지나고 수온이 올라가면 맛도 없고 녹아버리는 해조류다. 생긴 모양이 마치 길게 풀어헤친 머리카락 같아서 이곳에서는 '머뜨당파래' 혹은 '산(散)파래'라고 하는데 요리법이 독특하다.●



채집한 산파래를 손질하여 준비한다.



산파래김치를 담고 있다.



완성하여 담아낸 산파래김치

산파래김치 담는 법

- ① 파래를 깨끗이 세척하고 모래가 없도록 잘 인다.
- ② 묽은김치 국물을 체에 밭쳐 넣고 젓장으로 간을 맞춘다.
- ③ 고춧가루, 무채, 당근채, 쪽파 송송, 설탕, 깨소금 등을 넣고 잘 버무려서 실온에 하루 익힌다.
- ④ 산파래김치에는 마늘을 넣으면 쓰다.
- ⑤ 갈김이나 갈파래와 섞어도 좋다.
- ⑥ 익으면 김치처럼 신맛이 강해지지만, 오히려 그 맛이 더 재미있다 한다.

책으로 읽는 슬로푸드 ⑮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왜 하루에 10만 명, 5초마다 어린이
한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가?**

글 김용수(전북 고창지부, 고창백복스 '꾼' 대표) 사진 Unsplash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사실은 나라님이 가난 구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구제를 방해하고, 구제를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세상이 버젓이 펼쳐지는 현실이다. 그런 곳이 어디에 있냐고?

장 지글러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식량과 기아 문제를 오랫동안 다룬 사회학자다. 이 책은 1999년에 출판된 되었지만 2007년에야 우리에게 소개되었고,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할 것 같았으나 현재 50만 부 이상 팔렸다. 누군가 ‘이만큼 팔렸다는 것은 우리가 식량과 기아 문제에 관심이 큰 것이고 그만큼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장 지글러가 이 책을 썼던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지고 해결의 실마리는 쉬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다.

장 지글러는 말한다. “기아 희생자들과 우리를 갈라놓은 것은 단지 출생의 우연뿐이다. 기아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기아는 인간이 종식할 수 있다.”(서문)

농촌 사람들,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기아에 시달린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농민들은 대단히 부지런하고 유능하다. 이들은 평생 배고픔에 시달린다.”(47쪽) 이는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자연도태설은 기아로 인해 희생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불행에도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52쪽) 지구의 인구밀도를 기근이 적당히 조절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금 부족으로 국제기구도 힘들어한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4분의 1은 부유한 국가의 소가 먹는다. 그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은 영양 과잉 질병으로 사망하고 다른 쪽에서는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있다.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구호단체들이 있지만 구호단체는 극단적인 조건에서 활동하고, 갖가지 모순들과 싸워야 한다. 그러나 어떤 대가도 한 아이의 생명에 비할 수는 없다.(107쪽) 그래서 원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원조에는 여러 방법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식량을 직접 지원하는 것, 기아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 전 세계적인 각성을 하는 것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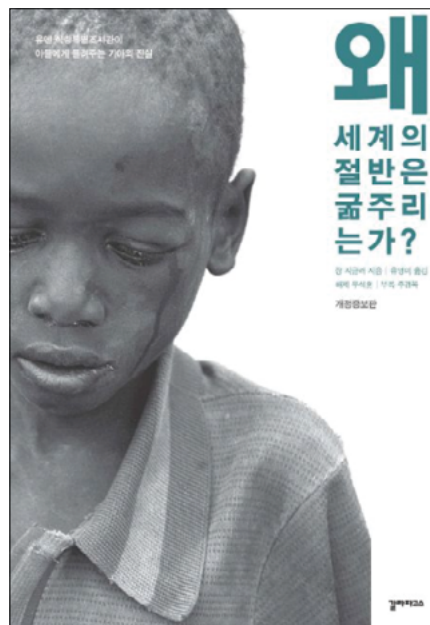
아프리카의 경우 과거 식민지국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크다. 과거 식민지의 권력자들은 아프리카 농민들에게 유럽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즉 유럽 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는 작물을 경작하도록 했다. 한 예로 세네갈은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오로지 땅콩 농사에만 매달리도록 강요받았다. 수출만의 단일경작으로 농민은 혈값에 농산물을 넘기고 지배계급은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동을 착취하여 얻은 차액으로 엄청난 사치를 누리고 있다.(148~149쪽)

그럼 진정한 활로는 없는 것일까? 좌절과 절망만 남는가?

그렇다. 비극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기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스스로 자급자족경제를 이룩하는 것 외에는 진정한 출구가 없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하지 못하게 된 살인적인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엎어야 한다. 시장원리주의경제(신자유주의), 폭력적인 금융자본 등이 세계를 불평등하고 비참하게 만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지음, 유영미 옮김, 우석훈 해제, 갈라파고스 펴냄)

들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자립적인 경제를 가꾸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169쪽)

이 책은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 아니다. 문답식으로 기아와 식량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분량도 본 내용은 200쪽 정도로 부담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기아와 식량문제를 설득력 있게 짚어준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밑줄과 생각을 적으며 읽게 된다. 슬로푸드 운동도 기아와 식량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책을 읽으면 해답의 일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정의에 대한 인간 불굴의 의지 속에 존재한다. 파블로 네루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들은 모든 꽃을 꺾어 버릴 수는 있지만 결코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LOW COFFEE



알고 보면 불편한 커피의 진실, 알고 마시면 건강한 슬로커피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는 원산지에서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 환경과 노동, 그리고 건강에 대한 갖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문제점은 크게 커피 생산 환경에서 농약과 중금속의 문제, 보관 및 유통과정에서 곰팡이독소의 문제, 로스팅 과정에서 탄소 배출 및 발암물질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출 시 카페인, 타르, 탄닌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글·사진 최정현(슬로푸드커피연합 준비위원장)

● 최정현 슬로푸드커피연합 준비위원장은...

BNCR 대표이사로서 건강하고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커피 추출 기술을 연구하며, 특히 '분리 드립(Separation Drip)'을 활용한 특허 기술로, 커피의 좋은 성분만을 추출하면서도 불필요한 쓴맛과 카페인, 타르의 부작용을 줄이는 섬세한 커피 추출 방식으로 건강한 커피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려 식품이 된 한국의 커피 문화

슬로푸드커피연합은 ‘좋고(Good), 깨끗하고(Clean), 공정한(Fair)’ 커피 문화를 확산시키며, 건강한 커피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한다.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커피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커피 문화와 제조 기술에서는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스페셜티 커피 소비는 급격히 증가해, 2023년 기준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에 달하며 전 세계 평균(160잔)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한국인이 커피를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반려 식품처럼 여긴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하루의 시작을 커피 한 잔으로 여는 것은 기본이고,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오후 3~4시경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또 한잔, 저녁에는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즐기는 커피 한 잔까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거나 마시는 환경에 접해있다. 커피 없이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곁에 깊이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익숙한 커피 속에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불편한 커피의 진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는 원산지에서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 환경과 노동, 그리고 건강에 대한 갖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커피 생산 환경에서 농약과 중금속의 문제, 보관 및 유통과정에서 곰팡이독소의 문제, 로스팅 과정에서 탄소 배출 및 발암물질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출 시 카페인, 타르, 탄닌 문제다. 그중 이번 달에는 재배와 유통과정의 문제점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첫째, 커피 생산의 환경 문제: 저가 커피와 대량생산의 그림자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기호식품이지만, 생산과정의 환경 문제는 여전히 간과되고 있다. 특히 커피 농장의 농약 사용과 환경 오염 문제는 단순히 생산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고급 아라비카(Arabica) 품종은 병충해에 취약하지만, 품질이 우수하여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농가들은 대량의 농약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늘재배(Shade-Grown), 천연 비료 사용, 수작업 관리 등 친환경 방법으로 커피를 재배한다. 농부들은 커피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세심하게 관리하며 품질을 유지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며,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커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제슬로푸드커피연합은 커피 산지에서 재배부터 관리하여 좋은 제품을 만든다. 하지만 모든 커피가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되지는 않는다.

대규모로 운영되는 저가 커피 농장은 단가 절감과 생산량 극대화를 위해 대부분 환경을 희생한다. 품질이 낮고 시장 가격이 저렴한 커피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일부 대규모 농장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한 살충제 및 살균제 살포 등 환경에 해로운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커피 농장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이 높은 국가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한다. 그러나 커피 생두는 초기 샘플링 1회 검역 이후 동일 품종의 생두는 추가 검역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이는 한 번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라면 이후 유입되는 동일 품종의 생두에 지속적인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로써 저가 대량생산 커피 생두는 농약과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곰팡이독소와 방부제의 문제

커피의 보관 및 유통과정에서는 강한 곰팡이독소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다량의 방부제를 사용한다. 말하자면 곰팡이나, 방부제나, 혹은 둘 다냐의 문제다. 원래 커피를 ‘가공’하는 것은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13% 이내의 수분을 남기고 건조하는 과정이다. 이론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2025년 대의원 총회에서 강연하는 최정현 대표

적으로는 부패할 일이 없다. 하지만 보관 중에 발생하는 날씨의 변화는 크나큰 변수고, 원산지인 커피 벨트 지역에서부터 이동하는 선박 운송 과정에서 적도 바다의 덥고 습한 날씨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환경에서는 건조된 커피콩이라도 부패할 수 있다. 커피콩에 곰팡이가 피면 오크라톡신과 같은 강한 곰팡이독소가 생기는데, 이는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그래서 양심적이지 않은 많은 유통업체가 막대한 양의 방부제를 살포한다. 통풍·건조 시스템을 내장한 컨테이너를 쓰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값싼 커피콩이 위험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커피 생두의 보관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독소, 그중에서도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OTA)는 특정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로, 신장과 간 기능 저하, 면역력 저하, 발암 가능성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커피 생두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장기간 보관하거나 위생 관리가 미흡하면 곰팡이가 번식하여 독소가 생성될 위험이 크다. 국내에서도 일부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커피 제품에서 오크라톡신 A가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생두 보관 및 유통과정의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크라톡신 A 기준을 설정하여 모니터링하지만, 수입 생두에 대한 검역 시스템이 샘플 검사에 의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알고 마시면 더 건강한 슬로커피’ 강연 진행

지난 3월 15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가 개최한 대의원총회에서 커피연합은 슬로푸드조리사동맹과 협력하여 ‘건강한 커피 강연 및 맛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슬로푸드커피연합은 소비자로서 슬로푸드 회원들이 건강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과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을 강조했다. 슬로푸드커피연합은 커피의 건강한 측면을 알리고, 슬로커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강연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커피의 불편한 진실 세 번째로 로스팅 문제와 추출 문제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이러한 문제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



정기 대의원 총회 참가자 단체 사진

회원들의 열정적인 관심과 참여 ‘제11차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 현장 보고

지난 3월 15일, 제11차 ‘2025년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가 열렸다.

게임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불안 시국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대의원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슬로푸드 회원들의 열정적인 관심과 참여로 2024년도 슬로푸드 운동이 더 널리 확산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글·사진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10년 후원 회원 단체 사진

이번 총회에서는 10년을 한결같이 후원해주신 74명의 회원을 대표해서 김유신 이사에 감사장과 선물을 받았다. 김유신 이사는 인사말에서 고 김병수 이사를 통해 슬로푸드 활동을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슬로푸드 운동에 꼭 함께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총회 행사

대의원 총회는 슬로푸드 커피연합 준비위원회와 조리사동맹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맛 워크숍으로 시작하였다. 최정현 위원장이 독소가 적은 분리 추출 방식으로 내린 슬로푸드 커피와 이에 어울리는 디저트를 조리사동맹 김해영 위원장이 준비해 모두 맛보았다. 이어서 대의원들은 김민수 국제이사가 준비한 슬로푸드 핵심 프로젝트인 ‘슬로푸드 농장’ 강의를 듣고 2025년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는 지난해 2024년 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대의원들과 함께 돌아보고, 2025년 협회가 계획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안전을 승인해 슬로푸드 활동과 협회 운영 등 중요 사안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강남지부에서 준비한 맛있는 비빔밥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 교류하고 준비한 선물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신임 지부(담양, 여주이천) 지부장 인증서 수여
곽경자 담양지부장, 유채진 여주이천지부장.
2024년 예비 지부로 출발해서 꾸준한 활동을 인정받아 슬로푸드 정식지부로 승인되었다. 2025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신임 지부장 개인 소개 모습 2025년 많은 지부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바로 신임 지부장의 등장이다. (사진 순서대로) 파주 정정기, 화성 김수현, 고양 이광진, 강남 유귀숙, 수원 전옥자 지부장 등이 그 주인공이다. 2025년 신임 지부장들의 멋진 활약이 기대된다. 2024년까지 지부를 이끌어온 파주 임상채, 강남 이진희, 화성 금경연, 고양 최은영, 수원 유성경 전임 지부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부 활동상 시상, 내포지부회원들과 손정희 지부장
2024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지부에 주어지는 지부 활동상을 내포지부가 수상했다. 내포지부는 지난해 테라마드레 참여와 미각 교육, 여수 행사 지원 등 활발한 활동으로 본상을 받았으며, 부상으로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었다. 2025년에도 내포지부의 멋진 활동을 기대한다.

신임 지부장 단체 사진



‘2024 슬로푸드 감동 회원’ ‘2025 감사장’ 박세정, 박정희, 김명희 회원
지난 한 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슬로푸드 활동을 빛내준 회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탈리아 테라마드레를 비롯해 많은 행사에서 수고해주신 세 명의 회원에게 감사를 전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달팽이 걸음상’ 수여 내포지부장 손정희
2024년 한 해 누구보다 열심히 슬로푸드 운동을 알리고 확산하는데 기여한 회원에게 주는 달팽이 걸음상에 내포지부의 손정희 지부장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달팽이 배지를 받았다.



뉴스레터 홍보 감사장 고지현 홍보팀장
협회 활동과 생생한 지부 소식을 전하는 뉴스레터 제작에 수고한 고지현 전 홍보팀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1 최정현 대표와 김해영 위원장의 맛 워크숍 소개 2 최정현 대표가 커피를 준비하는 모습
3 조리사동맹이 준비한 디저트 4 준비된 커피와 디저트를 함께 시식하는 의원들

2 맛 워크숍

슬로푸드 커피연합 준비위원회와 조리사동맹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맛 워크숍은 최정현 대표의 슬로푸드 커피연합 소개와 함께 시작하였다. 독소가 적은 분리 추출 방식으로 내린 커피와 이에 어울리는 디저트를 조리사동맹 김해영 위원장이 준비해 모두가 맛보았다.

3 슬로푸드 농장 안내

2025년 슬로푸드 핵심 활동은 슬로푸드 농장 지정과 이를 이끌어갈 ‘지피기 (accelerator)’의 육성이다. 총회에 참여한 대의원들에게 슬로푸드 농장을 소개하는 연수를 진행했는데, 진행은 국내에서 첫 번째로 슬로푸드 농장 인증을 받은 김민수 부회장이 맡았다. 연수 내용은 국제슬로푸드협회의 행동 촉구 긴급 호소문으로 시작하여, 슬로푸드 변화 이론으로 슬로푸드 농장의 증가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슬로푸드 농장의 자격을 갖는 방법과 이러한 농장을 발굴하는 ‘지피기’에 대한 개념과 지정 양식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1 슬로푸드 농장 연수를 진행하는 김민수 부회장
2 슬로푸드 농장 연수를 받는 의원들

4 안건 심의

지난 2024년 사업과 결산 보고를 통해 계획했었던 주요 사업의 결과 등을 보고하고 2025년의 사업계획, 예산안을 승인받았다.



안건 심의를 진행하는 김종덕 회장

5 대의원 총회 이모저모

행사가 모두 끝난 이후 다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여러 지역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나누고 각 지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1, 2 비빔밥을 만드는 모습과 함께 준비된 김치 3 총회 마무리 후 함께 식사하는 모습



남양주, 광주, 파주 지부와 각 지부의 회원 소개

오늘도 우리는 슬로푸드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와 전국 각 지부의 활동 소식을 모았다.

정리 신민건(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뉴스레터 담당) 사진 각 지부 및 회원 제공



1



2



3



4

‘장의 날’ 제정 행사

지난 2월 21일 한식진흥원에서는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를 비롯해 많은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해 유네스코의 한국 장담그기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축하하고, 장의 날 제정을 선포하는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참석한 각계 내외빈 소개에 이어 신동화 대표의 인사말과 김종덕 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김종덕 회장은 축사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며, 전통 장류의 고유한 전통성과 가치, 그리고 이를 보존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뒤, 장의 날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장의 날 제정을 응원하기 위해 신달자 시인은 장을 주제로 직접 지은 시를 낭독했다. 이후 강순아 장문화협회가 제정 설문 결과 ‘장의 날’이 2월 22일로 정해졌으며 농림부에 건의할 예정임을 보고했다. 장의 날 선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쳤다. ‘장의 날’이 제정되어 우리의 ‘장 담그기’ 문화가 더욱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1 행사 참가자 단체 사진 2 장의 날 제정 행사가 열린 한식진흥원

3 신달자 시인 4 김종덕 회장 축사



2 파주 장 담그기 행사

지난 3월 5일 경칩(驚蟄)에 장 담그기 무형문화 등재를 기념하여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와 장문화협회 공동 주최로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서 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봄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쌀쌀한 날씨였지만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본 행사에 참여하여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이후 준비된 재료로 직접 장 담그기를 하였다. 대부분 아파트 생활로 집에서 장을 담그기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장단콩의 좋은 재료로 청정한 장소에서 직접 장을 담그는 것은 큰 행운이다.



3 학교급식 음식물 줄이기 실천 방안 토론회

지난 3월 13일 경기도 의회에서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가 제안하고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신현미 전국영양교사회장이 축하한 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 우수학교와 기관 시상, 사례 발표를 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정명옥 전 영양교사와 김거성, 오종민 등 세 명이 음식물 쓰레기 해결을 위한 발제와 윤병선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 최초 제안자인 이경현 슬로푸드 회원은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장현예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는 슬로푸드에서 추진하는 학교 텃밭과 미각 교육, 조리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 김옥자 서울시 영양교사회 회장 등 여러 단체에서 방안을 제시하였고, 실무직에 있는 여러 영양교사가 참관하여 함께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시민사회단체는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1 '학교급식 음식물 줄이기 실천 방안 토론회' 포스터

2 토론회를 진행하며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토론회에 참석자 단체 사진

2025 Slow Fish 축제 참가 안내

슬로푸드만의 특별한 여정에 초대합니다.

매 홀수 년마다 이탈리아의 제노아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해양생물다양성보호와 바다 맛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슬로피시(slow fish)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슬로피시 축제 참관으로 컨퍼런스 참여와 슬로푸드만의 맛워크숍을 경험과 제노바 지역 탐방 후 슬로푸드의 성지이자 꿈의 섬 '시칠리아'를 여유롭게 구석 구석 돌아보고 슬로푸드 국제본부가 추천하는 시칠리아 생산자와 만남과 함께

아름다운 농가 식당에서 시칠리아 만의 전통의 맛을 즐기는 특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내는 이탈리아 예술문화사를 전공하신 정상신 선생님의 깊이 있는 이탈리아 문화 해설이 여행 내내 감동을 주는 뜻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슬로푸드만의 특별한 여정에 회원 여러분과 슬로피시와 슬로푸드에 관심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기 간 : 5월 7일 인천 출발 ~ 5월 19일 도착 (11박 13일)

▶ 국 가 : 이탈리아 리구리아주 제노바, 시칠리아

▶ 방문지: 제노바, 시칠리아

▶ 인 원 : 22명 (선착순 한정)

▶ 비 용 : 슬로푸드 회원 380만 원 (1년 미만 회원 430만원)

▶ 포함 사항 : 차량/가이드, 주차료, 1일 3식(기내식포함), 슬로피시국제 페스티벌 맛워크숍 2회 참가비, 이디투리스모(어촌숙박) 탐방, 슬로푸드 이태리협회 추천식당 식사 포함. 3,4성급 호텔(2인1실 기준), 1억원 여행자 보험, 전 일정 입장료, 시티텍스, 도시 진입료

▶ 불포함사항 : 왕복 항공권(항공권 구매 별도 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

공동경비 100유로 (식사 시 물, 식당 팁, 가이드 팁, 기사 팁 기타 공통경비)

이외 일체의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 15명 이하 출발 시 비용 변동이 있습니다.

▶ 접수 기간 : 2025.4.10.일까지 선착순 22명

T:02-737-1665 slowfoodkorea@gmail.com

참관비 입금 : 농협 355-0015-7505-93

(사)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일정 안내

5/8 (목) 밀라노에서 제노바 슬로피시 행사장으로, 제노바 1박

5/9 (금) 제노바 슬로피시 행사장

5/10 (토) 슬로피시, 제노바 GOA

5/11 (일) 팔레르모 시내

5/12 (월) 트라파니 소금의 프레시디아 생산지 방문,
고성마을 에리체 (Erice)

5/13 (화) 몬레알레-체팔루-팔레르모4

5/14 (수) 타오르미나 오후 투어 타오르미나 숙박1

5/15 (목) 에트나 동부, Alcatara 계곡의 농업

1) 올리브 농장, 2) Agrumi (Limone, Arancia) 농장,

3) Alcantara 계곡 Catania 1박

5/16 (금) 시라쿠사 Sito archeologico, Ortigia, Catania 2박

5/17(토)Catania Mercato del Pesce, 밀라노, 베르가모

5/18 (일)밀라노 시내 투어, 밀라노 아웃 22시경 MPX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슬로푸드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의 자랑스런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님들이 내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 소멸위기의 종자 및 음식 유산을 지키는 맛의방주 발굴 및 등재
- 슬로푸드 운동의 경험을 나누는 "어머니인 땅" 워크숍
- 슬로푸드 운동 확산을 위한 국제슬로푸드축제 참가 및 개최
- 유전자조작식재료(GMO) 반대○ 지속가능한 어업을 지키는 슬로피시 운동
- 조리로 농업과 건강, 식문화를 지키는 "조리하는대한민국" 캠페인
- 콩 유전자원 보전과 자금 실현을 위한 "콩의나라대한민국" 캠페인
- 공장식 축산 육제품 대신, 적게 먹되 제대로 된 고기를 먹자는 "슬로미트" 운동
- 우리 차의 소중함을 느끼고 차생산자를 돕는 "차마시는 사회" 캠페인
- 지역의 음식 문화를 보전하고 육성하는 "슬로푸드집밥리더" 양성
- 음식 독서, 공동부엌, 토종씨앗 보전, 생산자 격려 등 지역별 지부 및 커뮤니티 육성

슬로푸드 회원이 되시면 위와 같은 일을 지원하는 외에도 160개국의 슬로푸드 회원들과의 연대 안에서 지구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슬로푸드 공동생산자가 되어 먹을거리의 기본인 농업, 땅, 가족농, 종자를 지킵니다. 또한 슬로푸드 지부나 커뮤니티와 함께 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벤트도 열면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5년02월~2025년03월 슬로푸드후원 (정기회비납부자)명단

푸른콩방주(대표김민수)/제주, (주)도담(대표이원영/슬로푸드친구들)/충북청주, (주)뜰과숲(대표권춘희) 서울강남, (주)물과산소(대표우병렬)경기김포, (주)쁘리마쥬(대표오진수/슬로푸드친구들)/경기안양, (주)생태미식연구소(대표남윤미)/경기여주, (주)선농생활(대표신동수)경기양평, (주)초정(대표정인숙)/전남 곡성, John Kenneth Lee/전남장흥, NIINUMA CHIKA/서울마포, 강경갑/부산, 강경석/제주도 강구열/경북예천, 강대욱/경남거창, 강덕순/광주광역시, 강미경/ 충남 논산, 강민규/울산광역시, 강병규/전북남원, 강서영/제주, 강석찬/경기화성, 강성일/제주, 강순아/서울서초, 강순임/전남담양, 강양숙/제주, 강영수/대구광역시, 강영주/충남서천, 강은미/전북김제, 강장원/경기안양, 강주남/제주, 강지윤/전북고창, 강창건/제주, 강혜련/충남예산, 행복빛는떡시루(대표강혜진)/전북군산, 강희숙/경기파주, 강희숙/경북울릉, 강희진/충남예산, 경소정/경기남양주, 경지현/서울강남, 고미애/전북전주, 고성광/경기고양, 고양찬우물농장/경기고양, 고영/경기화성, 고영희/제주, 고영희/제주, 고옥희/경기파주, 고용준/제주, 고운/서울마포, 고은정/제주, 고은정/전북남원, 고재섭/경북영양, 고점석/전북전주, 고지현/서울용산, 고현미/경기남양주, 고현준/제주, 고화순/경기남양주, 골드참치(최연)/서울송파,, 곽

경자/전남담양, 곽미경/전남담양, 곽민선/서울강남, 곽선미/서울용산, 곽순자/전남담양, 곽여경/전남여수, 곽주홍/경남김해, 구본일/경기파주, 구자운/충남예산, 국영주/강원홍천, 권미연/경기부천, 권성원/서울은평, 권승희/경기고양, 권연숙/경북울릉, 권오열/세종시, 권용덕/경기고양, 권윤희/서울종로, 권용/서울은평, 권은민/서울종로, 권인옥/서울강북, 권재영/미지정, 권찬중/경북울릉, 권필순/경북울릉, 권향숙/경기파주, 권혜경/충남아산, 권화조/경북울릉, 권효숙/서울서초, 규반(대표)/서울 중구, 금대연/경기화성, 기여은/서울중랑, 기중서/제주, 김경숙/전남장흥, 김경숙/서울은평, 김경아/경기부천, 김경자/전남담양, 김경환/경기고양, 김경희/서울성동, 김경희/충남예산, 김경희/서울성북, 김경희/경기의정부, 김계숙/경북울릉, 김계향/전남담양, 김관숙/전북완주, 김관영/전북군산, 김관호/충남서산, 김광옥/광주광역시, 김광태/경북고성, 김귀임/광주광역시, 김금옥/경기남양주, 김기라/전남광주, 김기열/서울영등포, 김나경/부산, 김나영/서울중랑, 김남희/경북울릉, 김다솔/경기파주, 김대수/서울성북, 김덕일/경기평택, 김도원/제주, 김도윤/경북울릉, 김동관/전남고흥, 김동숙/경기파주, 김동우/경기오산, 김동자/경북울릉, 김동환/충남논산, 김말선/전남완도, 김명례/충남서산, 김명미/서울관악, 김명숙/경북울릉, 김명숙/경기용인, 김명애/경북울릉, 김명희/서울노원, 김명희/충남홍성, 김명희/경기양주, 김미경/광주광역시, 김미나/부산광역시, 김미득/경남창원, 김미라/전남완도, 김미숙/서울마포, 김미숙/서울강서, 김미연/충남청양, 김미영/경기파주, 김미자/전남순천, 김미진/광주광역시, 김미희/경남하동, 김민영/경기남양주, 김민정/경북울릉, 김민호/경기광주, 김민희/제주시, 김병범/경기성남, 김병수/경북울릉, 김보람/서울노원, 김복남/경북울진, 김복희/광주광역시, 김부미/서울서초, 김상권/경기화성, 김상기/경기파주, 김상범/전남무안, 김상진/서울 동대문, 김상하/광주광역시, 김상희/경기파주, 김생기/서울강남, 김서원/경기파주, 김석순/경기고양, 김선란/전남순천, 김선영/충남예산, 김선유/서울동대문, 김선화/경북울릉, 김선희/전남무안, 김선희/부산광역시, 김성윤/경기남양주, 김성은/전북부안, 김성일/충북청주, 김성현/전남목포, 김성훈/경기평택, 김성희/서울동작, 김성희/전남화순, 김소연/경기평택, 김수미/경남고성, 김수미/경기의정부, 김수연/전북고창, 김수영/경기수원, 김수진/서울구로, 김수하/경남밀양, 김수현/경기화성, 김숙정/전북전주, 김숙희/전남담양, 김순주/경북울릉, 김순향/전남여수, 김순화/경북울릉, 김승준/서울용산, 김승환/경북울릉, 김아윤/슬로청춘, 김여진/전북전주, 김연주/충남서산, 김연태/서울관악, 김영경/경기여주, 김영금/경기파주, 김영남/경북울릉, 김영란/충북제천, 김영란/전남신안, 김영림/서울관악, 김영림/서울동작, 김영미/서울성북, 김영미/전북고창, 김영수/전남화순, 김영숙/충남예산, 김영숙/전북고창, 김영순/경기파주, 김영식/세종, 김영신/전남완도, 김영신/제주도, 김영애/경기양주, 김영애/광주광역시, 김영애/경기수원, 김영옥/전남화순, 김영주/서울강남, 김영택/전북익산, 김영향/서울구로, 김영희/전남담양, 김예성/서울강남, 김옥분/충남홍성, 김옥분/경북울릉, 김옥선/서울송파, 김옥선/경북울릉, 김옥용/경북울릉, 김완섭/경북안동, 김용수/전북고창, 김용훈/전남담양, 김원봉/경기여주, 김원일/서울종로, 김원형/경기남양주, 김유나/서울용산, 김유신/서울은평, 김윤미/경기남양주, 김윤배/경북울릉, 김윤정/서울성북, 김윤주/경기양평, 김은경/전북익산, 김은규/전남강진, 김은성/전북고창, 김은숙/서울중구, 김은숙/경기양주, 김은숙/광주광역시, 김은아/경북울릉, 김은영/경기의정부, 김은주/전남여수, 김은

혜/경기양평, 김익현/경기의정부, 김인숙/서울서초, 김인순/전북전주, 김인자/경기파주, 김자현/서울 관악, 김재광/경기고양, 김재균/경기의정부, 김재숙/광주광역시. 김재준/전남나주, 김정규/경기김포, 김정수/서울동작, 김정수/경기파주, 김정숙/경기수원, 김정아/제주, 김정애/경북울릉, 김정애/부산해운대, 김정열/제주, 김정옥/경북울릉, 김정자/경기양주, 김정화/경기의정부, 김정희/전남여수, 김정희/충북청주, 김종덕/서울동작, 김종애/충북충주, 김종철/제주, 김종화/강원철원, 김주덕/제주, 김주회/서울동대문, 김준/전남고흥, 김지영/서울 종로, 김지우/전남강진, 김진만/대전광역시, 김진수/전남여수, 김진욱/경기화성, 김진주/전북전주, 김진태/전남고흥, 김진향/인천직할시. 김찬주/경기시흥, 김창균/전북전주, 김창중/광주광역시, 김채옥/서울동대문, 김채윤/전북전주, 김추자/전남여수, 김춘교/경기부천, 김춘성/경기하남, 김충구/충남천안, 김태분/경북울릉, 김태준/전남화순, 김태철/경기성남, 김태훈/전북전주, 김하경/서울동작, 김현곤/전북진안, 김현규/전북군산, 김현미/경북울릉, 김현석/서울시중구, 김현숙/경기김포, 김현숙/경기의정부, 김현순/서울은평, 김현옥/경북울릉, 김현옥/경기부천, 김형순/경기고양, 김형애/충남예산, 김혜경/전북남원, 김혜란/서울종로, 김혜숙/강원강릉, 김혜정/서울강서, 김홍기/충남예산, 김회은/충남홍성, 김효재/서울 광진, 김희명/전북군산, 김희섭/경기하남, 김희순/전북군산(정답순대), 김희영/ 김희재/부산광역시, 나경희/전북고창, 나상분/인천강화, 나예주발효/경남거창, 나혜리/경기남양주, 남은주/경기안성, 남정희/경북울릉, 남창우/전남순천, 남한권/경북울릉, 노국환/경기양평, 노미경/경기여주, 노민영/서울종로, 농업회사법인 농부생각(대표김동완)/충남아산, 농업회사법인울릉독도팜㈜, 농업회사법인절굿대, 느린세상영농조합법인(대표김갑남)/경북상주, 다정농원(대표심복남)/경북성주, 도덕현/전북고창, 라연화/경기고양, 라포르하레/제주, 라호채/전북무주, 류경옥/광주광역시, 류명주/광주광역시, 류정기/경기고양, 류춘자/경기고양, 르도혜/부산광역시, 마경희/ 경북울릉, 마행덕/충북청주, 문명숙/경북울릉, 문봉준/전남장성, 문서정/경기수원, 문성수/경기파주, 문성희/전남구례, 문순자/경북울릉, 문오권/광주광역시, 문유숙/서울은평, 문재형/경기하남, 문지영/서울은평, 민경윤/경기용인, 민덕희/전남여수, 민병철/전남여수, 민진욱/서울동대문, 바른식습관연구소(대표김아람)/경기광명, 박경아/경기남양주, 박경희/경기파주, 박기호/경북울릉, 박난실/전남여수, 박남옥/전남여수, 박덕수/경북울릉, 박도희(박소연)/경기양평, 박동근/서울양천, 박동금/전북완주, 박동우/서울마포, 박래훈/경기화성, 박만희/광주광역시, 박미경/경남함양, 박미자/충남홍성, 박미현/경기고양, 박민숙/광주광역시, 박민제/경기양평, 박상미/서울종로, 박상일/전남해남, 박서필/캄보디아. 박석희/서울동작, 박성미/전남여수, 박성숙/독일, 박성자/경기평택, 박성춘/전남신안, 박성혜/경기광주, 박세정/서울양천, 박소은/전남화순, 박순덕/경북울릉, 박순옥/전남담양, 박애경/경기양평, 박애련/서울강남, 박연주/경기파주, 박영란/경기광주, 박영미/서울종로, 박영애/강원홍천, 박영재/경기수원, 박영희/제주, 박영희/경북울릉, 박용수/경북울릉, 박이현/전남고흥, 박인숙/전남 담양, 박일두/전북전주, 박재원/서울강남, 박재현/미지정, 박정록/경기 남양주, 박정실/서울용산, 박정애/경북울릉, 박정옥/경기안양, 박정희/서울은평, 박종숙/경기이천, 박종일/서울강서, 박진숙/경기고양, 박진희/전북장수, 박찬영/서울관악, 박창규/전남담양, 박춘희/전남여수, 박태식/전남담양, 박태원/경기양평, 박현순/경기여주, 박현진/서울송파, 박형주/전북순창, 박

혜숙/전남순천, 박홍균/전남신안, 박희옥/서울종로, 반기민/충북청주,배경연/경기파주, 배덕희/전북진안, 배연하/전남고흥, 배영혜/경기화성, 배옥례/광주광역시, 배재희/전남영암, 배정숙/충남논산, 배형우/경기시흥, 백관실/경남진주, 백광빈/경기평택, 백말순등거장/경북성주, 백수환/광주광역시, 변경숙/서울송파, 변 산노을/경기양평, 변옥분/경북울릉, 변은숙/제주, 봉밀가평양냉면/서울강남, 부명미/경기파주, 부정숙/제주, 사랑의 손힐링리더스/광주광역시, 서동현/경기고양, 서미향/서울관악, 서상덕/전남보성, 서수진/경북울릉, 서은경/충남예산, 서종효/대구광역시, 서해용/충북청주, 서형숙/서울성북, 서희주/경기파주, 선정우/경기성남, 성길현/경기고양, 성명순/경기수원, 성선희/서울강남, 성세아/경기시흥, 성수진/전남화순, 성용호/서울서초, 성점숙/전남함평, 성정민/경기성남, 성현주/경기육천, 소인경/경남통영, 소혜순/경기남양주, 손금숙/서울광진, 손덕식/전북정읍, 손미숙/서울서대문, 손영숙/강원철원, 손영신/경북경산, 손영옥/서울서초, 손영자/전남화순, 손용원/경북울진, 손은아/전남담양, 손정희/충남홍성, 손철수/서울성동, 손혜연/서울송파, 손화자/경북울릉, 송관용/서울서초, 송기미/광주광역시, 송기희/광주광역시, 송동흙/서울서대문, 송명순/전남담양, 송미경/경북울릉, 송미경/경기성남, 송미령/전북전주, 송미화/경북울릉, 송서윤/대전광역시, 송수연/경북안동, 송영희/경기양평, 송장혁/전남담양, 송재향/전남여수, 송정숙/경기파주, 송정은/서울강서, 송주희/경기광주, 송중근/제주, 송지은/경기양주, 송진선/부산직할시, 송철식/경남창원, 송태경/전북진안, 신경남/전남고흥, 신동수/경기양평, 신동집/인천강화, 신동환/서울영등포, 신미경/전남여수 신미경/경기양평, 신민건/경기 남양주, 신상천/충남서천, 신서하/서울강남, 신수경/서울동대문, 신영규/경남김해, 신용조/충남홍성, 신유리/서울강북, 신은희/경북대구, 신일현/경기포천, 신종암/전남여수, 신현숙/경기고양, 신형숙/전남담양, 신형식/경기남양주, 신효림/서울동작, 심상옥/서울종로, 심온/경기구리, 심재경/전남완도, 심찬/서울강남, 안기영/경기양주, 안덕준/서울은평, 안란/광주광역시, 안병권/전북김제, 안성민/전북고창, 안세희/경기남양주, 안소연/서울강남, 안수복/경북포항, 안승문/경기고양, 안승화/서울강남, 안완배/경기양평, 안완식/경기수원, 안윤자/광주광역시, 안일국/서울은평, 안재명/전남담양, 안정순/경기고양, 안종운/서울서초, 안현숙/ 경기파주, 안혜경/전남순천, 양말년/경북울릉, 양문실/제주, 양미순/경북예천, 양성오/경남창원, 양성은/전남화순, 양소영/전남여수, 양옥경/전북전주, 양이선/제주, 양인자/경기광명, 양정미/경북울릉, 양정철/제주, 양종천/강원춘천, 양차심/충남보령, 양향숙/전북완주, 양혜숙/제주, 양희은/경기의정부, 양희정/서울송파, 어프로젝트(대표천재박)/경기파주, 언리밋테이블(대표김해영)/서울강서, 엄지선/ , 여수미미협동조합/전남여수, 엄희순/대구광역시, 여애숙/경북울릉, 연현주/경북울릉, 오동엽/경북청도, 오미경/전북전주, 오석환/전북익산, 오성표/전남고흥, 오수아/광주광역시, 오승희/전북완주, 오연숙/제주, 오영상/전남여수, 오용균/서울송파, 오용준/서울송파, 오원희/인천강화, 오은서/서울강북, 오인숙/제주, 오정선/경기광주, 오정하/전남담양, 오태숙/경북울릉, 우석영/경기고양, 우선화/경기파주, 우영선/미지정, 우태영/경남거창, 우호창/경기가평, 원승현/강원영월, 유경/전북김제, 유경숙/서울노원, 유경순/서울강북, 유귀숙/서울동작, 유기상/전북고창, 유정길/경기고양, 유미호/서울구로, 유병숙/충남서산, 유선금/서울서대문구, 유성훈/전북부안, 유수현(카펜트리)슬로프렌즈 /경기남양주, 유승현/경기남양주, 유시현/경기남양주, 유신정/

서울서초, 유영아/전남고흥, 유은의/경기김포, 유일순/충남서산, 유일화/경북울릉, 유재성/강원영월, 유정희/전북전주, 유정희(고천마실)/경북포항, 유종철/경기수원, 유창우(카펜트리)슬로프렌즈/경기남양주, 유채진/경기여주, 유준영/전남담양, 유현주/서울서초, 유혜선/충북청주, 유홍림/프랑스, 유황순/경기양주, 육주희/서울관악, 윤가비채/광주광역시, 윤경림/서울관악, 윤경숙/충남서산, 윤광미/경기고양, 윤광희/경기광명, 윤대근/전남나주, 윤대식/전남강진, 윤매숙/경북울릉, 윤병구/전남함평, 윤상미/서울서대문, 윤석진/경기포천, 윤성희/충북청주, 윤순옥/전남강진, 윤신애/서울은평, 윤아영(레스토랑오와이)/서울강남, 윤영주/경북울진, 윤영철/경북울릉, 윤유경/서울동작, 윤재영/서울강남, 윤정옥/충남논산, 윤종민/전남여수, 윤진영/서울종로, 윤하영/대전광역시, 이강백/경기고양, 이강식/경기화성, 이경민/전남담양, 이경숙/경기양주, 이경숙/경기파주, 이경애/경북울릉, 이경우/경기양평, 이경이/경기양평, 이경자/충남홍성, 이경태/경북울릉, 이광빈/제주, 이광영/경기파주, 이광진/경기용인, 이광진(일산애)/경기고양, 이귀임/전남영광, 이귀조/경북울릉, 이규현/전남담양, 이근왕/경남하동, 이근혜/종로, 이금선/경북울릉, 이기동/서울송파, 이길순/광주광역시, 이나금/경기파주, 이남숙/경기파주, 이대건/전북고창, 이덕주/경남하동, 이덕준/경북울릉, 이도경/경기파주, 이동선/경기용인, 이동일/경기용인, 이두열/경기김포, 이명/서울강남, 이명숙/대전광역시, 이명숙/경북울릉, 이명숙/서울서초, 이명주/경기김포, 이명희/서울용산, 이문봉/경기안양, 이미덕/강원횡성, 이미우/경기양주, 이미정/전북군산, 이민/제주, 이민영/경기양주, 이민일/경기파주, 이민형/경기고양, 이보은/서울구로, 이보향/서울도봉, 이보희/경기과천, 이빈파/서울성북, 이상관/경기광주, 이상미/전남담양, 이상배/경기화성, 이상원/경기남양주, 이상익/서울종로, 이상행/서울용산, 이상현/경북울릉, 이상훈/경기평택, 이상희/제주, 이상희/경남통영, 이석영/경기수원, 이선진/인천광역시, 이성철/부산광역시, 이세훈/경기양평, 이수경/서울강동, 이수연/경기성남, 이수연/경기용인, 이수진/서울성북, 이숙연/서울동작, 이숙희/경남창원, 이순규/경기남양주, 이순득/경기용인, 이승길/전남완도, 이승숙/충남논산, 이승창/전남완도, 이승현/서울종로, 이승희/전남해남, 이승희/경기평택, 이애란/충남홍성, 이연례/전남순천, 이연수/서울송파, 이연례/전남강진, 이영성/서울종로, 이영숙/충남예산, 이영숙/충북청주, 이영숙/경북울릉, 이영실/경북울릉, 이영아/전남담양, 이영희/경기수원, 이예숙/전남담양, 이옥녀/제주, 이옥순/서울양천, 이옥희/경북경주, 이용숙/경기수원, 이용원/경기여주, 이용이/전북군산, 이우숙/경기부천, 이원로/경기성남, 이원영/경기하남, 이원자/경기여주, 이윤선/제주, 이윤숙/광주광역시, 이윤철/강원영월, 이은경/광주광역시, 이은미/대구광역시, 이은선/서울강남, 이은실/경북포항, 이은혜/충남공주, 이자영/경기양평, 이재덕/서울강남, 이재선/경기양주, 이재영/충남계룡, 이재용/경기화성, 이재현/충북보은, 이재훈/대구광역시, 이정석/제주, 이정숙/충남예산, 이정숙/전북정읍, 이정숙/대전광역시, 이정아/제주, 이정아/경남하동, 이정아/광주광역시, 이정원/전남담양, 이정자/서울종로, 이정직/미지정, 이정호/강원원주, 이정화/전남담양, 이종진/전북전주, 이주연/서울용산, 이주해/전북임실, 이준섭/제주, 이준호/전북고창, 이지순/경기양평, 이지영/제주, 이지현/경기남양주, 이지형/경북경산, 이진숙/전남화순, 이진영/전북전주, 이진형/경남진주, 이진희/서울동작, 이창희/경기양평, 이청하/경북봉화, 이춘자/경북울릉, 이해숙/충남홍성, 이현숙/충북청주, 이현영/전남여수, 이현정/경기여주,

이현종/경기고양, 이해경/서울성동, 이해정/경북포항, 이호진/경기김포, 이희운/전남장흥, 임국현/전북부안, 임명검/충남보령, 임미선/경기양평, 임미숙/경기고양, 임상채/경기파주, 임서형/제주, 임선자/경북울릉, 임연주/전남화순, 임영수/경기고양, 임영혜/충북영동, 임인숙/광주광역시, 임인환/경기양평, 임장옥/전북정읍, 임창덕/경기구리, 임태인/광주광역시, 임헌문/경북봉화, 임현/경기과천, 임희연/광주광역시., 장경순/서울중구, 장경식/서울마포, 장금애/전남강진, 장내순/전남장흥, 장대석/경기성남, 장명숙(신순규)/실미원, 장명아/광주광역시, 장미향/경기포천, 장수찬/경기화성, 장승영/경기광주, 장승희/경기사흥, 장영기/ , 장영숙/경기파주, 장영주/서울은평, 장영춘/서울성북, 장유경/서울강남, 장유성/부산광역시, 장은숙/경남양산, 장주연/경기고양, 장중연/전남목포, 장지영/전남무안, 장진호/서울마포, 장하늬/서울마포, 장한/인천광역시, 장현남/서울동대문, 장현순/경기파주, 장현예/경기남양주, 장희상/전남화순, 전계운/전북고창, 전민석/경기남양주, 전병덕/경기수원, 전병성/경기파주, 전선희/전남곡성, 전성희/경북안동, 전송자/경기파주, 전옥자/경기화성, 전은순/경기파주, 전인옥/경북구미, 전형광/충남공주, 전효원/대구광역시, 정갑순/경기광명, 정관스님/전남장성, 정규화/경남진주, 정금자/경기파주, 정금철/전북부안, 정남숙/전남담양, 정다운/경북울릉, 정대휘/경북울릉, 정명성/전북정읍, 정미선/서울서대문, 정미영/경기파주, 정병남/전남고흥, 정병수/광주광역시, 정봉희/서울용산, 정상신/이탈리아, 정상옥/충남홍성, 정상택/광주광역시, 정순덕/경기파주, 정순옥/경기양주, 정안숙/전남담양, 정연숙/경기수원, 정연주/경기양평, 정영숙/경기양평, 정영숙/충남보령, 정영호/전남무안, 정용호/경북울릉, 정운교/충북음성, 정유정/서울강서, 정은하/경기남양주, 정인숙/전남여수, 정일심/경기양주, 정점숙/경기남양주, 정정기/경기파주, 정정하/서울종로, 정제민/충남예산, 정종숙/전북부안, 정진순/전북고창, 정진영/제주, 정진화/서울은평, 정태남/전남담양, 정해경/충남예산, 정현자/전남여수, 정현주/전남여수, 정현진/경북울진, 정현창/경기양평, 정혜경/경기고양, 정혜윤/인천광역시, 정호진(자르디미농)/경북구미, 정효미/전남화순, 정효화/전남화순, 정희정/전남무안, 제주로부터/제주시, 조경신/전북전주, 조남희/경기성남, 조선자/전남강진, 조수영/충남홍성, 조순영/전남광양, 조연원/충남예산, 조영현/전남장흥, 조완석/경기용인, 조용란/경기파주, 조원실/경기고양, 조윤심/전북익산, 조은진/전북정읍, 조은희/경북경주, 조이스/경북울릉, 조정/경기고양, 조정환/경기화성, 조중기/강원철원, 조창범/제주, 조철/전북진안, 조태경/서울종로, 조향순/전남순천, 조혜원/서울서대문, 조희경/경기파주, 주권기/광주광역시, 주귀연/인천광역시, 주미란/서울도봉, (주)서스테이블/서울동작, (주)옥텟/서울강남, 주연섭/경북문경, 주영하/경기성남, 주은옥/전남여수, 주인옥/서울강동, 주형로/충안홍성, 주형미/경기부천, 주희진/광주광역시, 지윤진(피코서울)/서울사직, 지은주/서울서초, 진미령/경남창원, 진이린/경기고양, 진인희/미지정, 진태민/제주, 찐누룩발효공방/서울강서, 차나무뱅크/경기용인, 차명옥/전북전주, 차무길/경기성남, 차미경/광주광역시, 차시영/전남장흥, 차정단/전북진안, 채점석/제주, 채지애/제주, 천정자/전남장흥, 천지연/전남순천, 천호균/경기파주, 최경남/전북부안, 최근태/충북옥천, 최낙전/경기양평, 최돈익/서울강남, 최득수/충북단양, 최말희/경북울릉, 최미자/서울노원, 최보영/전남강진, 최복민/전북전부, , 최삼남/전북부안, 최상숙/충남홍성, 최선미/전남담양, 최성희/서울은평, 최송아/경기고양, 최숙자/전남고흥, 최승철/경기안양,

최식림/경남산청, 최양숙/경기파주, 최영미/서울성북, 최영숙/경남창원, 최영숙/경북울릉, 최용범/전남구례, 최윤경/서울중랑, 최윤수/경기여주, 최윤수/경기여주, 최윤희/서울영등포, 최은숙/경기김포, 최은영/경기고양, 최재덕/경기여주, 최정민/대구, 최정분/경기파주, 최정현/경기성남, 최정희/경기양주, 최종현/경기수원, 최종호/경기양평, 최주현/부산광역시, 최준표/경기수원, 최준호/서울용산, 최지영/서울강남, 최철/경기연천, 최춘경/전북전주, 최춘화/전남담양, 최학순/충북청주, 최후경/전남여수, 최희돈/경북울릉, 최희철/경기수원, 추민아/광주광역시, 추승민/서울관악, 태울팜솔루션/경기수원, 템바이오/경기의왕, 하늘농가/슬로푸드친구들(고화순)/경기남양주, 하완기/경남거창, 하정애/경북울릉, 하진석/경기고양, 한갑수/서울노원, 한귀숙/경북울릉, 한광식/경기양평, 한기남/전남구례, 한대수/경남거창, 한도연/전남담양, 한도현/경기성남, 한명구/서울중구, 한복려/서울종로, 한사랑마을교육공동체/경기포천, 한상준/경북예천, 한선이/전남담양, 한성천/경남하동, 한소중/전남여수, 한소희/전남여수, 한열영농조합법인/슬로푸드친구들(대표김원봉)/경기여주, 한영수/경기양평, 한외자/경북울릉, , 한은희/경기남양주, 한정심/전북군산, 한정현/경기광주, 한주희/경기파주, 한창본/전남장흥, 한태림/전남순천, 한해광/전남여수, 햇살마당/경기파주, 허운/경남산청, 허경희/서울강남, 허기순/경기가평, 허선혜/ 허순연/경북울릉, 허정희/경기파주, 허태원/전남여수, 허향순/제주, 허훈/경기포천, 현금지/경기남양주, 현길아/제주, 현은주/경기남양주, 현종영/서울강남, 현혜인/경기수원, 협동조합아우내공동체/ 홍경량/제주, 홍광표/경기화성, 홍명숙/경기양평, 홍미라/경기하남, 홍선희/서울성북, 홍수민/충남홍성, 홍숙기/전남화순, 홍순미/서울은평, 현인농원(대표홍승갑)/경기파주, 홍양현/전남나주, 홍여신/전남강진, 홍은화/경기수원, 홍정아/부산광역시, 홍천기/서울영등포, 홍철표/경기양주, 홍혜영/대전광역시, 황기순/전남영양, 황길자/전북김제, 황미화/경북울릉, 황보순자/경기여주, 황순임/충남서산, 황정민/전남강진, 황종환/전남나주, 황진웅/충남공주, 황태연/전남담양, 황현화/전북군산, 황효숙/경북울릉, 황효정/경북울릉, 효덕목장(대표이선애)/충남천안, (이상1,080명)

슬로푸드회원특가

달팽이 매거진
연 구독 할인

연 구독 18만원에서 15만원으로
20% 할인되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현금가)

슬로푸드회원만 특별히!!
문의전화는 협회로
입금과 배송은 최영미 회원

슬로푸드 회원이되면 멋진세상이..

 02-737-1665